

광주 광산구, 탄소 감축·기후위기 대응 정책 '눈길'

2045년 탄소 중립도시 구현 위한 전문가·시민단체 거버넌스 구축 자원순환 해설사·아이스팩 재활용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 확대



김삼호 광산구청장이 직원들과 함께 사용 후 버려진 아이스팩을 재활용하기 위해 세척 작업을 하고 있다.

광주 광산구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민관협력사업과 시민활동 지원사업 등을 펼치기로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산구는 2045년 탄소 중립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민관협업과 시민참여가 시급하다고 보고, 각 분야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를 이달 내에 구축하기로 했다.

행정·전문가·구의원 등 15명 내외로 구성된 민관 거버넌스 '기후변화대응위원회'는 산하 14개 단체 네트워크인 '비상행동', 100인의 '시민참여단', 각 실과 공직자로 구성된 'TF' 등과 연대해 연말까지 탄소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전략 수립 및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100인 '시민참여단'은 오는 21일까지 모집하며, 이들이 제시하는 아이디어와 제안은 중장기 계획에 반영된다. 또 '기후위기 대응 시민활동 지원사업'에 참가할 단체도 오는 9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교육, 캠페인, 실천단 운영 등을 통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지속가능한 환경과 생태를 보존하는 시민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광산구는 지난 2월에는 환경부가 주관한 '기초지자체 기후위기 대응계획' 수립 지원사업에 공모해 광주 지자체 중 유일하게 선정돼 국비 7000만원을 확보했으며, 국가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과 연계해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전망, 감축 및 적응대책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구는 또 지구온도를 내리기 위해 건물외벽을 냉각식물 초록 커튼으로 조성하거나 에너지 자립마을

을 조성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광산구의 기후 위기 대응 역점 사업 중 하나인 태양에너지로 전기와 온수를 생산하는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은 지난해 도산동 내 주택과 상업·공공건물 86개소에 태양광, 태양열 시설을 설치한데 이어 올해는 우산동, 월곡동 279개소로 확대한다.

광산구는 이 밖에도 환경지킴이인 자원순환해설사 등도 양성 중이다. 지난해 늘어나는 쓰레기 문제를 주민 스스로 개선해보고자 자원순환교육·캠페인을 펼쳤는데, 교육이수자 중 해설사로 등록된 10명이 자원순환해설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올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자원순환교육을 한다. 광산구는 내년까지 자원순환해설사 9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여파로 배달음식 등이 늘면서 급격히 증가한 아이스팩을 재활용하는 사업도 호응을 얻고 있다. 아이스팩은 충전제로 미세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제품이 많아 심각한 토양과 하천 오염원 주범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산구는 지난해 여름부터 공동주택과

동 행정복지센터 355개소에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고, 사용한 아이스팩을 수거하는 시범사업을 펼치고 있다. 수거 아이스팩은 위탁업체와 자원봉사자가 깨끗하게 세척한 뒤 식품업체와 전통시장 등 39곳에 공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48톤, 37만 여개를 다시 활용하는 성과를 거뒀다.

광산구는 이 밖에도 실외 공기질 개선을 위해 관내 180개소에 미세먼지 센서를 달고, 12개소에 청정환기 시스템을 갖춘 버스 정류장도 구축하고 있다. 이는 2019년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으로, 광산구가 180억 원을 확보해 추진 중인 '공기산업' 중 하나다. 실외공기질 관제 신기술 개발, 시범 실증단지 구축, 공기정화 관련 중소기업 복합지원센터 구축 등 3단계로 진행하고 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7일 "기후위기 시대, 지구환경 보호에 관심은 높아졌지만 일회용 사용이 늘면서 환경오염 문제가 더 커지고 있다"면서 "시민의 생활 속 실천을 돕고 자원순환, 신재생에너지 사용 등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

광주비아농협, 농촌 외국인근로자 대상 코로나19 감염 예방 선제적 대응 '호평'

불법체류자 등 검사 두려



비아농협 직원들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농업인 공동이용 시설 등에 방역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광주비아농협(조합장 박홍식)이 농촌지역 외국인 근로자의 코로나19 예방 활동을 선제 대응해 호평을 받고 있다.

7일 광주비아농협과 조합원들에게 따르면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관할 보건소 등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코로나19 검사를 집중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이 언어 소통이 되지 않고, 바쁜 영농시기에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것 자체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검사를 기피하는 현상이 빚어졌다. 이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현황마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 연출됐다.

실제 영농현장에서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코로나19 검사 이후 불법체류 단속·추방 등 신변에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신분노출을 꺼려하고 있는 게 전국 농촌지역의 현실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파악한 비아농협은 지난 3월 한달동안 농협 내 전담팀을 구성하고, 우선적으로 관내 '농업인의 외국인 고용현황' 조사에 나섰다.

전담팀은 농업경영인들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현황을 자발적으로 밝히지 않음에 따라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1개월 만에 전체 현황을 파악하는 성과를 냈다.

비아농협은 정상적으로 입국한 15명의 외국인 근로자와 불법 체류 상태에서 고용된 30여명 등 총 45명의 외국인 근로자의 신원을 확보했으며, 코로나19 검사를 독려했다. 하지만 이번엔 농업경영주들은 코로나19 검사 과정과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반

발하고 나섰다. 비아농협은 고민 끝에 광산구에 협조를 요청하고, 시간대별로 검사 일정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신속한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광산구는 최근 전체 45명의 관내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했으며, 다행히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박홍식 비아농협 조합장은 "대부분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어 실태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면서도 "수차례 직접 방문해 이해를 시키는 방법으로 해당 조합원의 협조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비아농협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농업인 공동이용 시설 등에 지속적인 방역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역 농업인에게 마스크도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최승렬 기자 srchoi@

광산구청의 화사한 '봄 인사'

위로·희망 글귀 '행복돋움판' 민원인에 인기



광주 광산구청을 방문한 시민들이 청사에 내건 대형 현수막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희망은 봄과 함께 오고, 행복은 너와 함께 온다." 요즘 광주 광산구청을 방문하면 볼 수 있는 글귀다.

청사 상단 '행복돋움판'에 내건 현수막(가로 21m, 세로 9.8m)에 새겨진 글귀는 코로나19 백신이 가겨울 일상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맞물리면서 민원인들로부터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구청 광장에서 현수막을 배경으로 셀카를 찍는 구민도 많다.

현수막 글귀는 배서영 씨의 작품으로, 광산구가 지난 2월 공모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받은 380명 중 심사위원회가 최종 선정한 것이다.

문예창작학과 교수, 수필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배 씨의 글귀를 "백신 접종과 함께 찾아온 일상 회복의 희망과 마음을 시적인 언어로 잘 표현했다"고 평가했다. 광산구는 또 "나눌 수 있는 온기

가 있는 한, 나도 누군가에게 봄이다" 등 5편을 작으로 선정했다.

광산구는 배 씨의 글귀를 광주송정역, 장덕도서관, 삼양공원 등 8곳에 게시했으며, 앞으로 계절이 바뀔 때마다 좋은 글귀를 선정해 희망과 감동을 시민과 나눈다는 계획이다. /최승렬 기자 srchoi@

광주시, '제8기 광주역 도시재생대학' 운영

5월까지 주민역량강화 교육

광주시는 "5월까지 8회에 걸쳐 광주역 인근 주민 30명을 대상으로 '제8기 광주역 도시재생대학'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광주역 도시재생대학은 주민이 도시재생에 대한 이론과 지식을 습득해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힘을 기르는 주민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이다. 2019년 4기, 2020년 3기 등 총 7기를 운영해 광주역 인근 주민 180여 명 교육을 받았다.

이번 교육은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진행한다. 온라인 교육은 네이버 밴드, 오프라인은 광주역

현장지원센터에서 열린다. 강의는 도시재생 관련 전문가들이 맡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이해' 등 이론과 사례지 답사, 워크숍 등으로 꾸며진다.

올해 광주역 도시재생 대학은 8기 주민교육을 시작으로 9기 청년교육(5월), 10기 상인교육(7월), 11기 주민교육 2차(10월)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역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062-521-0056)로 문의하거나 현장지원센터 블로그(<https://blog.naver.com/gjghc>)에서 확인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